

DECONSTRUCT — 해체

발칸 패키지 역설계 분석

하나투어 발칸 2종을 공개 일정표로 역설계

READ·BUILD · KIM HYUNGJUN · 포트폴리오 심화자료 · 인과는 주장하지 않음

"트렌드를 읽고, 상품을 해부한다"

한 줄 정의: 2026년 1월 #꿈꾸는여행에 내가 올린 '발칸 히든젼' 여행 콘셉트와, 같은 시기 하나투어가 출시한 두 개의 발칸 패키지를 **공개 일정표만으로 역설계**해, 상품 기획의 논리를 해부하고 화이트스페이스(경쟁자가 비워둔 시장 공백)를 찾은 분석.

목적 3가지

1. **검증** — 내 시장 직관이 실제 업계 상품 기획과 얼마나 일치했는가
2. **해부** — 패키지 상품이 실제로 어떤 제약 위에서 설계되는가
3. **확장** — 내가 PM이라면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

⚠ **전제(반드시 지킬 선):** "내 글 때문에 상품이 나왔다"는 **인과관계는 주장하지 않는다**. 가치는 **같은 시장 신호를 독립적으로 먼저 읽었다**는 사실에 있다.

1. 원본 제안 — 2026.01 #꿈꾸는여행 (검증의 기준점)

하나투어 피드, 계정 **HJ_Trav** (소개: "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진 작가"). 게시일 2026.01.24, 위치 태그 '코토르'.
반응: 좋아요 2, 댓글 2(독립군 🇰🇷 / 여행가영2 "굿"). 해시태그 #꿈꾸는여행.

항목	내용
콘셉트	"(흔하고 뻔한 여행은 그만) 숨은 보석 국가들 여행"
떠나고 싶은 이유	발칸엔 한국에 잘 안 알려진 숨은 휴양지가 많음 · 낮선 이름의 유럽 풍경 · 물가가 서유럽보다 저렴 · 여행 유튜브에서 보고 흥미
동선 발상	"크로아티아는 이미 유명하지만, 두브로브니크를 따라 발칸 반도를 쭉 내려오며 보스니아·알바니아·북마케도니아·몬테네그로·세르비아를 거쳐 그리스까지"
국가별 보고 싶은 것	불가리아 체레브츠 요새 +소피아 / 루마니아 드라쿨라 성 /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역사 / 보스니아 평화의 다리 / 몬테네그로·북마케도니아 자연경관 / 알바니아 신생국가 탄생기
동행	친한 친구 1명 (혼자도 가능)
꼭 하고 싶은 것 3가지	① 코토르만 스피드보트 투어(몬테네그로) ② 마르카 호수 보트 + 브렐로 동굴 탐험(북마케도니아) ③ 베오그라드 사바강/다뉴브 강 리버 크루즈(세르비아)

→ ①②③ 모두 '무엇을 볼까(see)'가 아니라 '무엇을 경험할까(do)' 항목이라는 점을 기억할 것. (§ 7에서 결정적으로 쓰임)

2. 두 상품 한눈에 비교

2-1. 전략 비교

항목	발칸 5개국 10일 (히든젼)	정통 발칸 완전일주 6개국 12일 (프리미엄)
가격	4,990,000원	7,190,000원 (+2,200,000 / +44%)
기간	8박 10일	10박 12일
항공	터키항공 · 이스탄불 경유	루프트한자 · 프랑크푸르트 경유
국가(5 vs 6)	몬테네그로·알바니아·북마케도니아·불가리아·루마니아	루마니아·불가리아·세르비아·보스니아·크로아티아·슬로베니아
핵심 포함	코토르·오흐리드·릴라수도원·베라트·펠레슈성·브란성	위 성격 + 두브로브니크·스플리트·자다르·플리트비체·블레드·류블라나·자그레브·빈
의도적 제외	크로아티아·세르비아를 통째로 뺌	거의 없음 (말 그대로 '완전일주')
식사 차별점	현지식 + 석식 한식 2회 (안전판)	특식 5회 + 두브로브니크 미술관 등재 레스토랑 점심
포함 액티비티	(사실상 없음 – 관람·외관 위주)	블레드성 내부입장, 플리트비체 보트, 스르지산 전망대 +성벽투어 ('2대옵션 포함' 마케팅)
호텔	전일정 4성	전일정 4성 + 해안가 호텔 1박
이동 강도	버스 마라톤 (확인 함께 ~38h, \$4)	더 긴 종단 (해안+알프스, 12일)
한 줄 포지셔닝	"남들 다 아는 발칸 말고, 숨은 보석" 가성비	"발칸 다 보고 싶다" 완전정복 프리미엄
타겟(추정)	가성비·차별화 원하는 2030~중장년	시간·예산 여유, 안 빠뜨리고 보고 싶은 층
내 1월 콘셉트와의 관계	거의 정확히 일치	부분 일치(루트는 더 넓음)

2-2. 상품 메타데이터

항목	5개국 10일	6개국 12일
상품코드	EBP138260701TKT	EBP139260703LHL
등급/타입	하나팩2.0 · 스탠다드 · 출발예정	하나팩2.0 · 스탠다드 · 출발예정
출발/도착	07.01(수) 10:15 → 07.10(금) 17:40	07.03(금) 12:20 → 07.14(화) 09:55
항공편	TK0021(출) / TK0090(귀)	LH0713·LH1422(출) / LH0718(귀)
결제	월 998,000원 (5개월 무이자)	월 1,438,000원 (5개월 무이자)
적립	최대 42,700M	최대 65,600M
예약현황	0명 / 20석 (최소출발 성인 15명)	—

항목	5개국 10일	6개국 12일
공통	NO 쇼핑 · NO 선택관광 · 가이드/기사 경비 포함 ·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· 인솔자 동행(일부 구간 한국인 가이드)	좌동 (미팅: 07/03 09:20 인천공항 제1터미널 14번 출입문)
AI 해시태그	#낭만적인발칸여행 #역사속여행 #감성가득여행 #발칸여행추천	#아름다운호수풍경 #역사속여행 #전통맛집탐방 #발칸여행

3. 발칸 5개국 10일 — 전체 일정 해부 (핵심 상품·전 구간 검증)

★ = 숙박 도시. 이동 시간은 모두 공개 일정표 명기치(버스).

일	날짜	경로 (★숙박)	이동(버스)	식사 조/중/ 석	호텔(★)	주요 스톱
1	07/01(수)	인천→이스탄불(경유)→ 포드고리차★	항공: ICN10:15→IST15:55→TG D19:50	-/ 기내/ 기내	라자로 4성	(이동일)
2	07/02(목)	포드고리차→ 코토르→레저★	1h30 · 3h30	호텔/ 현지/ 호텔	리스 레저 4성	코토르, 스베티스테판
3	07/03(금)	레저→티라나→베라트→ 오호리드★	1h · 2h · 3h	호텔/ 현지/ 호텔	빌라 리니도스 스퀘어 4성	스칸데르베그 광장, 에데메이 모스크, 베라트성, 술탄모스크
4	07/04(토)	오호리드→스코피예→ 비니차★	3h · 1h30	호텔/ 현지/ 호텔	센트럴 4성	성 요한 카네오, 사무엘 요새, 마케도니아 광장, 스톤 브릿지, 동방시장
5	07/05(일)	비니차→릴라→ 소피아★	1h30 · 2h	호텔/ 현지/ 호텔	소피아 4성	릴라수도원(UNESCO), 알렉산더네프스키, 세르디카 유적, 바냐바시 모스크, 성 페트카 지하교회
6	07/06(월)	소피아→벨리코투르노보→ 네세바르★	2h30 · 3h	호텔/ 현지/ 호텔	Karolina	차레베츠 요새 , 성모 승천 교회
7	07/07(화)	네세바르→바르나→ 부카레스트★	2h · 4h	호텔/ 현지/ 한식	카로 4성	네세바르 유적(아폴로 신전 등), 바르나
8	07/08(수)	부카레스트→브란→ 시기쇼아라★	3h · (브란→시기쇼아라, 시간 미표기)	호텔/ 현지/ 현지	Mercure Sighisoara Binderbubi 4성	의회궁전, 개선문, 혁명광장, 크레줄레스쿠 정교회, 브란성
9	07/09(목)	시기쇼아라→시나이아→부카레스트→이스탄불(경유)	3h · 2h · 항공 OTP21:35→IST23:05	호텔/ 현지/ 한식	기내숙박	시나이아, 펠레슈성 (주의: 일일 입장인원 제한, 내부입장 불가 시 외부관람)

일	날짜	경로 (★숙박)	이동(버스)	식사 조/중/ 석	호텔(★)	주요 스톱
10	07/10 (금)	이스탄불→인천	항공: IST01:50→I CN17:40	기내/ 기내/ -	숙박없음	(이동일)

메모: 8일차 둘째 구간(브란→시기쇼아라)만 일정표에 시간 미표기. 한식 석식은 **7·9일차 2회**(현지식[한식])뿐 — 나머지 석식은 호텔식 또는 현지식.

4. 5개국 이동 강도 — 이 상품 설계의 핵심 긴장점

확인된 버스 구간만 합산:

일차	2	3	4	5	6	7	8	9	합계
시간	5.0	6.0	4.5	3.5	5.5	6.0	3.0+	5.0	약 38h+

- 일정표 명기 구간만 더해도 **약 38시간**(8일차 한 구간은 미표기라 실제로는 더 김), 운행일 기준 **하루 평균 약 5시간** 버스.
- 특히 **3일차(레저→티라나→베라트→오흐리드, 6h)**, **7일차(네세바르→바르나→부카레스트, 6h)**는 사실상 '이동이 곧 일정'.
- **왜 이런가:** 가격을 499만 원에 맞추려면 5개국×히든점을 한 동선에 묶어야 하고, 2차 도시들을 잇는 수단은 버스밖에 없다. → 가격·커버리지·이동강도가 **삼각 트레이드오프**로 묶임.
- **경험의 평준화:** 거의 모든 스톱이 "○○ 광장·요새·교회 외관/시내관광". 코토르조차 '관광'이며, **내가 1월에 제안한 코토르 스피드보트 같은 능동형 액티비티는 없다.**

5. 발칸 6개국 12일 — 일정 개요 (비교군)

일	날짜	경로	주요 스톱	식사 하이라이트
1	07/03 (금)	인천→프랑크푸르트(경유)→부카레스트	ICN12:20→FRA18:40→0 TP23:20	기내
2	07/04 (토)	부카레스트→브란→시나이아	브란성, 펠레슈성(왕의 여름별장) , 시나이아 수도원	
3	07/05 (일)	부카레스트→벨리코투르노보→소피아	의회궁전, 차레베츠 요새 , 알렉산더네프스키	
4	07/06 (월)	소피아→베오그라드	세르디카 유적, 바냐바시 모스크	
5	07/07 (화)	베오그라드→사라예보	칼레메그단 요새, 성 사바 교회	중식 현지식[중식] · 베오→사라 버스 5h
6	07/08 (수)	사라예보→모스타르→네움	라틴 다리, 스타리 모스트(Old Bridge)	

일	날짜	경로	주요 스톱	식사 하이라이트
7	07/09 (목)	네움→두브로브니크→스플리트	플라차 거리, 오노프리오 분수, 디오클레티안 궁전	특식: 마르코폴로(2025 미술쟁 등재) 점심 · 두브→스플 버스 4h
8	07/10 (금)	스플리트→자다르	바다 오르간, 세인트 도나트 교회	현지식[양식]
9	07/11 (토)	자다르→플리트비체→리예카	플리트비체 국립공원(보트 탑승 포함)	
10	07/12 (일)	리예카→포스토이나→블레드→류블라나	포스토이나 종유동굴, 블레드성 내부입장 , 보트	
11	07/13 (월)	류블라나→자그레브→빈 (당일 관광 후 야간 출국)		
12	07/14 (화)	인천 도착 (09:55)		

6개국의 차별 포인트(마케팅 명기): #4성호텔&해안호텔 1박 · #드라쿨라성(브란)&왕의 여름별장(펠레슈) · #2대웅선 포함 · #호수뷰 레스토랑 · #특식 5회. 5개국이 뺀 **크로아티아 해안 전체 + 슬로베니아 알프스 + 빈**까지 얹은 '완전정복'. 대신 **베오→사라 5h** 같은 더 긴 종단을 12일 내내 감당.

6. 역설계 인사이트

① 항공 허브가 곧 국가 구성을 결정한다.

5개국이 포드고리차(TGD)·이스탄불 같은 2차 공항을 싸게 묶는 건 **터키항공 이스탄불 경유**라서. 6개국이 부카레스트 in / 빈 out으로 서유럽 끝까지 가는 건 **루프트한자 프랑크푸르트 경유**라서. "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나오나(허브 = 중심 경유공항)"가 도시 리스트를 거의 결정한다. → 일정표만 봐도 추론되는 진짜 기획 결정.

② 한 카테고리를 두 세그먼트로 의도적으로 쪼갬다.

크로아티아(두브로브니크)는 이미 레드오션. 그래서 5개국은 **크로아티아·세르비아를 통째로 빼고** "남들 안 가는 발칸"으로, 6개국은 **다 넣고** "완전정복"으로 포지셔닝(시장 내 자리매김). 같은 발칸을 가격대×욕구로 갈라 **자기잠식**(카니발라이제이션 — 자사 상품끼리 고객을 빼앗는 것)을 피한다.

③ 동선은 '되돌아가지 않기'가 제1원리다.

5개국은 포드고리차→(아드리아 해안)→내륙 마케도니아→불가리아→흑해→루마니아로 **남→북동 일직선**, 백트래킹(왔던 길 되돌아가기) 거의 없음. 6개국도 부카레스트→불가리아→세르비아→보스니아→크로아티아 해안→슬로베니아→빈으로 한 방향 스위치.

④ 이 모델의 구조적 한계 = 내 기회. (정밀화)

- **버스 마라톤:** 5개국 하루 평균 ~5h(§ 4). 가격·인원·동선 때문에 단체 일주 모델은 못 벗어남.
- **경험의 평준화:** 5개국(가성비)은 거의 순수 관광. 6개국(프리미엄)은 가격으로 일부 경험을 사 옴(블레드성 입장·플리트비체 보트·전망대·성벽). 단, 6개국의 '경험'도 탑승·입장·전망 수준의 수동형이지, 내가 제안한 스피드보트·동굴탐험·리버크루즈 같은 **능동형 액티비티와는 결이 다르다**.

→ 경험 공백은 **가성비 라인에서 가장 크고**, 프리미엄 라인에서도 **능동형** 영역은 비어 있다. 여기가 화이트스페이스.

⑤ 식사·호텔은 '누구를 안심시키는가'의 신호다.

둘 다 4성 전일정으로 안심을 깔되, 차별화는 식사에서. 5개국은 **석식 한식 2회**로 중장년 안전판, 6개국은 **미술쟁 특식 + 특식 5회**로 프리미엄 신호. 같은 4성이라도 겨냥하는 고객이 다르다.

7. 내 1월 콘셉트 vs 출시 상품 — see/do 분리 (핵심 검증)

▷ '무엇을 볼까(see)'는 놀라울 만큼 적중. 내 1월 리스트가 5개국 상품과 거의 일치:

내 1월 제안	출시 상품(5개국)	일치
몬테네그로 코토르	2일차 코토르	✓
북마케도니아 자연경관	3·4일차 오흐리드 호수·스코피예	✓
알바니아 신생국	3일차 티라나·베라트	✓
불가리아 "체레브츠 요새"+소피아	6일차 차레베츠 요새 (벨리코투르노보) + 5일차 소피아	✓ ✓ (동일 지명)
루마니아 드라쿨라 성	8일차 브란성	✓
"서유럽보다 저렴한 숨은 보석"	5개국 가성비 포지셔닝	✓ (콘셉트 동일)

▷ '무엇을 경험할까(do)'는 하나도 안 겹침 — 그리고 이게 더 중요. 내 must-do 3가지는 두 상품 어디에도 없다:

내 must-do	두 상품 반영 여부
코토르 스피드보트	✗ (5개국은 코토르 '관광'만)
마르카 호수 보트 + 브렐로 동굴 탐험	✗ (오흐리드로 대체, 동굴 없음)
베오그라드 리버 크루즈	✗ (5개국은 세르비아 자체를 스킵)

결론: 내 'see' 직관은 업계 기획과 정확히 맞았고, 내 'do' 직관은 **단체 일주 모델이 구조적으로 못 담는 영역**을 정확히 짚었다. 이 갭이 § 8(A 레이어)의 출발점.

8. 화이트스페이스 & "내가 PM이면" — A 레이어 씨앗 (다음 단계)

함께 발전시킬 영역. 지금은 방향만.

- **관람형 → 경험형 혹은 이식:** 일주 핵심 동선은 유지하되, 도시별 '1일 1경험'(스피드보트·동굴·리버크루즈)을 모듈로. 단체 일주가 못 하는 능동형 경험을 정확히 공략.
- **세그먼트 재설계:** 45인승 대형버스 일주 vs 소규모/세미패키지 변형. 인원이 작아지면 버스 마라톤·관람 평준화 둘 다 완화.
- **'빠진 세르비아' 루트:** 베오그라드 리버크루즈를 넣는 별도 루트 = 내 1월 제안의 미충족 지점을 그대로 상품화.
- **포지셔닝 카피:** "발칸을 보는 여행에서, 발칸을 하는 여행으로."

부록 A. 출처

하나투어 공개 상품 페이지 및 세부 일정표 — 5개국 EBP138260701TKT, 6개국 EBP139260703LHL. 원본 제안: HJ_Trav 피드 게시물(2026.01.24). 모두 2026년 6월 캡처. 일정·이동시간·식사·호텔은 공개 일정표 기준이며 "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"이 명시됨.

부록 B. 용어

- **FIT**(Free Independent Tour) = 개별자유여행(패키지 반대 개념)
- **세그먼트** = 고객군 / **포지셔닝** = 시장 내 자리매김
- **백트래킹** = 왔던 길 되돌아가기 / **허브** = 중심 경유공항
- **자기잠식**(카니발라이제이션) = 자사 상품끼리 고객을 빼앗는 현상
- **화이트스페이스** = 경쟁자가 비워둔 시장 공백

부록 C. 검증 노트 (v1→v2 변경)

- 6개국 기간 **11박 12일** → **10박 12일**(귀국편 야간비행으로 마지막 밤은 기내).
- 5개국 8일차 석식 **한식** → **현지식**(한식 석식은 7·9일차 2회뿐).
- 5개국 버스 합계 **약 29h** → **약 38h+**(2~9일차 전 구간 합산, 8일차 한 구간은 미표기).
- 6개국 상품코드 **EBP139260703LHL**, 포함 액티비티(블레드성 입장·플리트비체 보트·스르지산 전망대·성벽투어), '2대옵션 포함·특식 5회' 추가.
- 원본 제안 전문, 상품 메타데이터 표 신설.